

『월드뷰』가 만난 이달의 인물

한국기독교실업인회(CBMC) 중앙회 회장 두상달 장로

현재 한국기독교실업인회 CBMC 중앙회 회장인 두상달 회장은 (주)칠성산업의 대표이며, 중동선교회, 전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한국가정문화원, 한기총청소년지도자대학 등의 이사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또한 아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위한 부부 세미나를 인도하고 있다. 우리나라 1호 가정사역자로도 유명하다. 삶에서의 신앙 실천을 강조하는 기독교세계관 운동을 몸소 평생 실천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 이달의 표지 인물로 초대했습니다.

인터뷰 김세중 아주대 겸임교수, 전 오후우스 대표, 새서울CBMC지회 증경회장, 극동방송 CBMC 칼럼 담당.

김세중: 먼저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고 신앙생활이 사업에 미친 영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두상달: 저는 젊은 시절에 무역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평생 무역과 건축을 해왔습니다. 해양심층수를 개발해서 SK에 5배 받고 팔기도 했습니다. 요즘에는 전원주택개발사업을 합니다. 저는 무역업을 주로 했는데요, 술을 안 먹고 접대 안하면 무역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지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30-40년 전에는 바이어들을 의례 술집이나 호텔에서 접대를 했습니다. 기독교인이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 집으로 Buyer를 초청해서 된장찌개나 고추장 등 순전한 한국토속식단으로 한상 차려 안방에서 양반다리를 하고 앉게하여 대접을 했습니다. 저도 그나라에 가면 자기 집에 초청하고 가족끼리 친해지다 보니 신용이 생겨서, 리볼빙(Revolving) L/C(Letter of Credit :

신용장) 100만 불을 열어주었습니다. 한도 내에서 수출하고 소진되면 다시 100만 불이 자동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무역금융을 쓸 수 있었습니다. 술 안먹는 것이 신용으로 변해 자산이 되었습니다. 마스터 L/C 받아서 그것으로 한국의 하청 업자에게 물품대금을 일주일 안에 현금으로 매번 결제 해주었습니다. 당시에는 큰 기업들이 어음을 끊어주어서 몇 달씩 늦게 결제해 주었습니다. 이자가 당시에는 연 18%~22%로 엄청나게 높아서, 몇 개월짜리 어음을 끊어주면 몇 십 퍼센트씩 가격을 깎이는 셈이지요. 그런데 나는 바로 현금으로 결제를 해 주니, 하청업자들이 아무리 바빠도 만사를 제쳐놓고 제 일을 수주하며 먼저 처리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수입상에게 받는 이점, 하청업자들에게 받는 이점들이 저에게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사업성공이라는 축복의 통로



가 되었습니다.

신앙이 사업에 도움이 된 것은 또 있습니다. 기업을 하다보면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쌀 99섬 갖은 사람이 쌀 1섬 갖은 사람 것을 뺏으려 합니다. 믿는 사람이 잘못하면, 예수님을 욕 먹이는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항상 절제하고 조심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무역을 처음 시작할 때 허례허식을 버리고 10평짜리 사무실에서 작은 규모로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보다 더 크게 무역사무실 차린 사업가들이 주변에 많았는데 대부분 망했습니다. 제가 신앙심에 기초해서 신용을 지키면서 검소하게 기업활동을 했더니 저절로 잘 되었습니다. 연합철강, 동국제강 등과 거래를 했는데, 처음에는 사무실 규모를 보고 믿지 못해서 공증하자고 하더니 신용이 좋으니, 나중에는 공증도 필요 없고, 오더만 달라고 했습니다. 기업에서 신용이 자산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김세중: 요즘 젊은이들은 창업보다는 공무원이나 교사 등 안정적인 직업만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

위스에서는 훌륭한 앙트리프리너를 키우기 위해서 교육시키는데, 한국은 좋은 직장인을 배출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창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후배 사업가들에게 어떤 조언을 하고 싶으신지요?

두상달: 저도 스타트업 시절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쌀 한가마니 가지고 청계천 5가에서 좌판을 벌였습니다, 리어카에 껌, 엿 등을 놓고 팔았지요.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도전을 안 합니다. 인생의 실패는 머리가 나빠서도 아니고, 여건이 나쁘거나 공부 못해서도 아닙니다. 너무 일찍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도전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저는 젊은이들에게 도전하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삼성에 취직하는 것만 바라지 말고, 삼성같은 회사를 만들겠다는 꿈을 꾸라, 그러면 다른 삶을 살게 된다고 조언을 합니다. 지금은 변화의 가속화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전통적인 대기업들인 모토롤라, 노키아, 제니스, 코닥 등이 망했습니까? 경영 기법을 안 써서 그런가요? 노무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망한 이유는 종전방법



대로 관행대로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에는 변화와 혁신, 도전과 창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런 공부를 하려고, 미국에 가면 일부러 우버택시를 타봅니다. 우버의 자산가치가 80조원이 넘습니다. 현대차는 40조원이니, 두 배이고 미국 GM보다 높지요, 차 한대도 없고, 기업공개도 안 한 회사의 자산가치가 그렇게 많습니다. 숙소도 일부러 에어비엔비를 이용합니다. 에어비엔비는 호텔 하나 없는데, 힐튼호텔보다 자산가치가 높습니다. 모빌아이는 인텔에 17조원에 팔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김기사가 626억원에 다음카카오에 팔렸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청년들이 취업이나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김세중: 해외 사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서 젊은이들이 해외에도 눈을 돌려야 하지 않을까요?

두상달: 맞습니다. 취직을 하더라도 저는 우리 젊

은이들이 해외에도 도전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은 국제기구에 기여하는 만큼 한국인의 자리가 나오는데, 이것을 다 못 채웁니다. 세계에 눈을 돌리면 기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는 도와주어야 할 땅이 아니라, 도전의 기회가 있는 땅입니다. 제가 국제구호단체인 기아대책기구의 이사를 해서 아프리카에 자주 갔습니다. 제가 젊으면 거기에 도전하겠습니다. 젊은이들이 열방을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제가 박근혜 전대통령께 젊은이 10만 명을 2년 간, 월급 1500~2000불 주고 해외에 파송을 하자고 했습니다. 미국이 세계에 평화봉사단 보내듯이 말입니다. 그 중에 10-20%만 해외에 정착에 성공해도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3조원 드는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을 이기는 유일한 민족이 한국인이라고 하는데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그 말을 하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한다고 하면서 별로 귀담아듣지 않더군요. 사실 KOICA에서 하는 것은 몇 백 명 수준에 불과합

니다. 이것을 일자리 만들기를 최대의 국정 목표로 삼는 현 정부가 하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국제적인 감각, 언어, 비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일자리 구하기 어려운 이럴 때 한 10만 명을 해외에 파송하면 청년들에게 일자리도 많이 주게 되고, 국제 감각도 익히고 먼 훗날 큰 한국의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김세중: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헌정 부도 일자리 늘리려고 여러 가지 대책을 내 놓고 있지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두상달: 현 정부가 지금처럼 공무원 늘리고 최저임금 올리는 식으로 하면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조기준교수께서 노조위원장은 프롤레타리아 위에 군림하는 또 하나의 귀족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5개 금융노조에 소속된 각 은행노동위원장들과 함께 북한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조기준 교수의 말을 실감했습니다. 그들은 돈도 호화판으로 썼습니다. 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생산과 연결이 안되는 것은 나눠먹기 분배일 뿐이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안됩니다. 젊은이들은 나누어먹는 일에 몰두하지 말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예전에 김우중회장은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고 했지요. 요즘에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하나 밖에 안 낳다보니, 자녀를 성년값 속에 갇힌 아이들로, 규격화 된 아이들로 만들었습니다. 일본이 지난 20여년간 성장률이 그렇게 둔화된 이유는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아이들을 보호막 속에 키웠기 때문입니다. 전쟁세대는 배수진을 치고 살아서 가방 하나 들고 5대양 6대주를 누볐습니다. 일본이 잘 살게되고 나니 다음 세대가 나약해져서 도전정신이 없어져서 그렇

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한국도 이제 자녀를 하나 밖에 낳지 않다 보니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세중: 기독교청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를 위한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두상달: 기독교청년들이 기도는 잘하고, 성경은 잘 아는데, 세상에 영향력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이 좋은 청년 지도자들은 선교사 나간다고 제게 후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모두 ~~선교 나가면~~ 세상은 누가 책임지냐고 제가 묻습니다. 직장 다니는 기독교청년들에게 저는 이렇게 당부합니다. 근무 시간에 성경보고 기도하지 말라. 직장에서는 실력으로 능력으로 승부해야 한다. 예수 믿는다고 직장에서 비실비실하면 안된다고. 예배 순서지 만드는 일은 근무 끝나고 해라. 실천하는 삶, 행동하는 삶을 강조해 왔습니다. 주일보다 흠어진 6일이 더 중요합니다. 일터에서 행동하는 삶이 중요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많이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내가 교회에서 매주 과제를 준 일이 있습니다. 이번 주는 교통신호 지키기 과제를 주었습니다.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서 신호등 무시하고 횡단보도 그냥 지나가면 안되지요. 삶과 연결되지 않은 신앙은 죽은 신앙이지요. 한국교회가 소아병적으로 울타리치고 자기 교인들을 교회에 가두어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중에는 CBMC 같은 단체 나가는 것 싫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됩니다. 저는 CBMC가 잘 되어야 교회가 잘된다고 봅니다. 교회도 선교를 하고 하려면 사업가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교회들이 청소년 사역에 투자를 하지 않아서 청소년 사역은 모두 비전문가들이 합니다. 그리고 청

소년 사역 몇 년 하면 또 그 부서를 떠납니다. 그러니 청소년들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유익하지도 않고, 재미없고, 지루하다고 느낍니다. 30-40년 전에는 교회학교가 일반학교 사회교육보다 더 매력적인 학교였습니다. 지금은 사회학교가 교회학교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젊은이들이 떠납니다. 중고등학생들은 인구의 3-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유럽처럼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사회적 기능을 해야 하고, 실업인회도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CBMC도 사회공헌 팀을 만들었습니다.

김세중: 한국기독실업인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장로님께서도 제가 활동한 새서울CBMC 지회를 창립하셨는데 어떻게 CBMC 활동을 시작하셨는지요? 그리고 CBMC가 기독 실업인들에게 어떻게 힘이 되었나요?

두상달: 1980년대에 경제인 연합회의 최태섭장로님, 김인득 장로님, 이봉수장로님, 최창근장로님, 유상근장로님 등이 권유해서 경제인 조찬기도회 운영위원장을 한 18년 정도 섬겼습니다. 초창기 1대 사무총장을 역임한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장 때인 1971년에 CBMC에 연결되었습니다. 당시에 서울 세종호텔에서 한 50명이 한국대회로 모였습니다. 그후 서정환 회장님이 운영이사로 넣어주어서 일을 했지만 지회활동은 별로 안 했는데, 상공부 유득환차관이 지회를 시작하자고 해서 1996년에 새서울지회를 창립하면서 열심히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실업인들이 모이다보면, 장점은 세상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고 올바른 방향을 찾아 나가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회개하고 회복되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래도 올바르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장을 읽을 때마다 하나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기독실업인에게 일터에서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청지기 정신을 가질 때 내려놓고, 빈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김세중: CBMC 중앙회 회장을 하시면서, 임기 중에 역점을 둔 사업이 무엇인지요?

두상달: 21세기를 대표하는 한 단어를 고른다면, 저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30-40년 동안 이 변화는 과거 1만년 동안의 변화와 맞먹을 정도로 큼니다. 그래서 종전의 패러다임을 다 바꾸어야 합니다. 정말 패러다임 쉬프트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이 변화 속에서 자본주의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변화의 시대에 한국기독실업인회도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화의 방향은 먼저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을 정비하고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강사풀을 새로 만들고, 건전한 흑자 재정 확립에 힘을 썼습니다. 당진에 훈련센터를 세운다고 돈을 많이 거두었는데, 센터를 세우기도 전에 벌써 다 썼습니다. 저는 센터를 지어놓으면 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3국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훈련시키려고 센터를 세운다고 했는데, 올 사람도 없고, 강사도 없고, 내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진훈련센터의 발전적 진전을 위해서 모든 투자를 중단시켰습니다. 저는 서울에 회관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마포에 있는 이 회관에서는 찬송도 크게 못 부릅니다. 저희 회원들에게는 서울에 센터

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독교방송 부지, 아시아연합대학원, 서울 장신 등을 세운 땅을 다 기독교실업인들이 기증했습니다. 우리가 회관을 서울에 가지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벌써 다 지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회관건립추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사무국 업무를 시스템화하기 위해서 전사적 자원 관리(Enterprise resource planning, ERP)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시스템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지요.

김세중: 한국에서 기업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그렇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두상달: 저는 기업은 이익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도자가 전도의 열매가 없으면 죄를 짓는 것과 같이, 기업가가 돈을 못 벌면 그것도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돈만 버는 것이 목적이기 문제가 생깁니다. 돈 벌어서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청지기 정신으로 더 많은 봉사과 섬김을 위해서 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현대는 자본주의 5.0. 시대라고들 하지요. 좋은 물건을 만들어 사회적인 기여를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가는 물건만을 파는 것이 아니라, 신용과 행복을 파는 것입니다. 우리 회원 중에 농사짓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자기 고객에게 마음속으로 “당신 수지맞았다.”고 자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품질의 물건을 가장 적절한 가격으로 사 가니까 나와 거래하는 모든 사람이 수지맞았고 행운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행복을 파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만 하면 돈이 저절로 따라옵니다. 가성비가 좋으면 사람들이 사게 되어있으니까요. 물건을 팔아보면 입소문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광고보다 더 좋은 것이 써 본 사람이 홍보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용 경험을 공유한 SNS를 보고 정보를 나누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니 더욱 중요하지요. 이렇게 하면 욕을 먹을 일이 없습니다.

미국인들은 실업인들을 존경합니다. 헬퍼스 하이(Helpers High, - 미국의 내과 의사 앨런 룩스(Allan luks)가 ‘선행의 치유력(2001)’라는 책에서 최초로 사용했다. 실험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을 도우면서 혹은 돕고 나서는 몸에서 신체적으로 정서적 포만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이 인간의 신체에 몇 주간 긍정적 변화를 야기 시킨다는 것이다. 단순히 정신적인 효과나 기분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반응이 일어난다. - 위키백과-)라는 말이 있지요? 한국 부자들은 미국 부자들에 비해서 자기 재산을 사회에 내 놓는데 좀 인색한 것 같습니다. 저는 삼성의 이병철회장이나 현대의 정주영 회장 등을 애국자라고 생각하고, 광화문에 이들 동상을 세워도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과거에 사회적 책무에 대해서는 약했습니다. 우리는 배수진을 치고 살았던 배고팠던 세대입니다. 토마스 모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업의 첫 세대는 빵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빵을 버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세대는 문화를 찾는다고 합니다. 환경, 즐거움, 행복 이런 것을 찾는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 3세대는 신앙, 정서 등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1세대 재벌은 돈 버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마는 2세대부터는 달라진다고 봅니다.

김세중: 올해 한국기독교실업인회 한국대회를 독특하게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를 좀 하시지요.

두상달: 보통 기독교실업인대회는 컨벤션 센터나 호텔에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비용도 절약하고 험금도 해서 훈련소 교회 건축을 돕기 위해서, 2박3일의 행사를 논산 훈련소에서 했습니다. 내무반에서 숙식을 하고 비용을 아껴 현금을 해서 훈련소 교회를 건립하는 건축기금으로 17억여원을 작성했습니다. 놀랄 정도로 상당히 많은 금액의 현금이 모였습니다. 이것도 사회적 책임의 실천의 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차세대를 세우는 일에 CBMC가 섬길수 있었던 것은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김세중: 아내인 김영숙 권사님과 함께 사단법인 가정문화원도 운영을 하시고 계시지요? 어떤 이유로 가정 사역을 시작하셨는지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상달: : 오래전에 아내가 자꾸 꼬드겨서 부부생활 모임에 갔습니다. 그런데 첫 시간 후에 아내가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했기에 저 여자가 저렇게 우나 싶어서 민망해서 어찌할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아내에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물어봤더니, 아내 말이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이 안 나지만, 내가 던진 말과 표정 하나하나가 다 상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내가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몰라서 평생 그렇게 살았던 것이지요. 병도 알면 고치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나 같은 남자가 어디에 있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내 중심적으로 살았지요. 사랑한다고 했지만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바뀌었지요.

어느 모임에서 강의를 하라고 해서 내 삶의 모습을 그대로 강의했습니다. 사실 좀 창피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미국에 페밀리 라이프라는 프로그램을 배워서, 한국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풀러신학교에서 가정회복(페밀리 세라피) 분야에 박사학위까지 했습니다. 강의할 때 둘이 하는데,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누가 저희들에게 강의하는 대로 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우리는 강의하는 대로 사는게 아니고, 사는 대로 강의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우리는 우리 삶의 모습을 그대로 강의합니다. 남자들을 대상으로는 제가 남자 입장에서 강의하고, 여자는 여자입장에서 아내가 강의합니다. 저희가 방송에 나가면 국내 1호 부부강사라고 합니다.

김세중: 지난 번에 JTBC에서 부부 주례사가 보도된 일이 있었는데, 강의도 함께 하시는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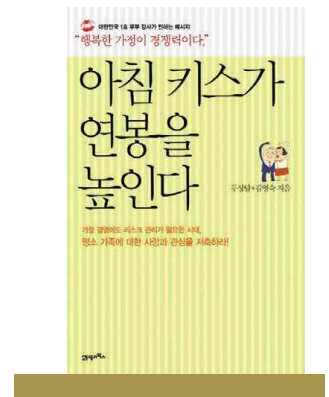
두상달: 예. 우리 부부는 주례를 함께 섭니다. 우리 부부는 주례를 하면서 싸우라고 합니다. 부부가 안 싸우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지요. 싸울 때도 이렇게 싸우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쳐줍니다. 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 싸우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싸우더라도 기본적인 룰을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면, 화가 나도 피붙이를 거론하지 말고, 폭력을 하지 않고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라고 하는 주례자는 우리부부 밖에 없다고들 합니다. 신랑신부에게 우리가 쓴 책을 주고, 이 책을 읽고 싸우고, 정 안되면 우리 찾아오라고 합니다. AS도 해 주는 셈이지요. 부부가 안 싸우면, 그것은 안 싸운 것이 아니라, 다른 한 쪽이 참은 것입니다. 적당한 때 폭발해야지 안 그러면 암으로

겁니다. 가스도 나오지 않으면 폭발하지요. 싸움도 대화입니다.

김세중: 보람있는 일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가장 보람된 일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었는지요?

두상달: 헤어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갈림길에서 다시 결합하는 일을 보면, 보람과 기쁨을 느낍니다. “저놈이 죽일 X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죽일 X이구나” 그러면서 이혼장 찢고 평평 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은 양평에서 집회를 하는데 어떤 이혼부부가 따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 방이 다 차서 할 수 없이 같은 방을 쓰라고 했습니다. 세미나 끝나고 합치기로 했다고 하는 것을 들으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떤 때는 보기 민망할 정도로 통곡하고 우는 모습도 봅니다. 나부터도 결혼면허증이 없이 남편역할, 부모역할을 했습니다. 무면허 아빠, 남편, 아내 역할을 하지요. 내가 좀 더 일찍 가정 원리 알았더라면 좀 더 훌륭한 아빠, 멋진 남편이 될 수 있었을텐데. 그런 후회를 합니다. 내 방식으로 한 것이 역기능을 했습니다. 아들 진혁이에게 사과를 많이 했습니다. 형제 중에 그 녀석이 아이큐가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내 방식대로 해서 상처를 많이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된 것을 노골적으로 사과하는 방법 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훌륭한 아빠는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실수할 수 있고, 그때마다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다고 고백하는 그런 개방적 아빠입니다.

가정 해체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이 천문학적 금액입니다. 청소년 범죄문제도 다 여기서 시작됩니다. 기업처럼 가정도 경영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있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이 있어 성공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국가의 성공 비결



입니다. 『아침 키스가 연봉을 높인다』는 책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쓴 부부교과서입니다. 교통사고도, 부부싸움 하는 날 가장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부부사이가 좋으면 직장 소통도 잘되고, 창의적인 사람이 되고, 회사의 정착률도 높고, 수명도 길다고 합니다. 반대로 부부싸움이 많으면 이직률 높다는 것이 공식입니다. 그래서 요즘 기업들은 가정 친화적인 기업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정이 망가지면 그 여파가 회사로 미칩니다.

김세중: 오늘날 한국 교회가 ‘모이는 교회’에 초점을 맞추고 자꾸 교회 안의 행사에만 교인들을 동원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사실 가정, 직장 등 ‘흩어지는 교회’ 생활도 매우 중요한데, 장로님께서 가정 사역과 기업활동을 통하여 이런 불균형을 고치는데 평생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건전하게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점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두상달: 가정이 망가지면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가정을 챙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교회들이 이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 많은 교회가 이것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성관계도 교회가 가르쳐야 합니다. 옛날같



이 폐쇄된 사회가 아닙니다. 동거문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이런 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가르쳐야 합니다. 결혼 예비학교를 다니고 결혼생활 하는 사람과 그런 사전 준비 없이 결혼생활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많습니다. 예비학교, 신혼학교, 은퇴학교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저같이 나이가 들어도 그 위치에서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일격언에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살 것인가 (HOW CAN I SPENT THE LAST CHAPTER OF MY LIFE) 하는 모델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세중: 중동 선교를 오래 하셨지요? 제가 대림산업 쿠웨이트 현장에 있을 때 두장로님 처음 보았습니다. 당시 40대 초반이셨습니다. 기독교실업인으로서 선교하신다고 현장 캠프에 와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나도 나중에 저런 선교하는 실업인이 되어야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로님의 선교활동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해주시지요.

두상달: 국민일보의 임한창 국장이 나를 3D 업종 선교만 한다고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3D선교

란 중동선교, 청년 선교, 교도소 선교처럼 어렵고, 힘든 선교를 말합니다. 제 아내가 교도소 선교를 34년째 합니다. 그리고 제가 방배동 카페골목 정화 사업을 16년간 했습니다. 방배동 카페골목이 한 때 한국의 유명한 환락가였습니다. 주제가를 만들어서 노래 부르고, 빗자루를 몇 십 개 만들어서 청소하고, 전도지 돌리고, 별 일을 다 해서, 그 지역을 변화시켰습니다.

중동선교도 3D 선교입니다. 제가 중동선교를 한 지 벌써 33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구레네 시몬처럼 저도 억지로 뒤집어졌습니다. 저는 중동에 아무런 연고도 없었습니다. 중동선교회 창립시 한분을 세우기로 했는데 한국교회와의 관계로 그 분이 안된다고 하고, 나를 세워야 한다고 해서 갑자기 뒤집어졌습니다. 그때 C.C.C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중동선교일은 일 년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고 34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중동 선교사 80명 정도를 관리합니다. 그들은 정말 삶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그때는 중동 선교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하고, 미친 짓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방화의 물결에 따라 여호와 이래 선교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김세중: 정말 장로님께서서는 가정사역, 기업활동, 선교활동 등 기독교 정신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실천하면서 멀티플레이어로 후반전을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 대표적인 분 중의 한 분 이신 것 같습니다. 장시간 좋은 말씀에 감사드립니다.